

# 1989년 ~2005년 남북종교교류 381건

## 문광부 '문화정책 백서' 펴내... 불교 중단 105개

정부가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 후 지난해 12월 까지 종교계의 남북과 북한 주민접촉은 총 613건(4938명)이 승인됐으며, 이 가운데 381건(3965명)이 성사됐다.

문화관광부가 5월 17일 발간한 <2005 문화정책 백서>에 따르면 1989-1997년 평균 1명 수준이던 남북 종교 교류는 1998년 국민의 정부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322.4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남북 종교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로, 북한 주민접촉도 같은 기간 67.9명에서 100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동안 종교계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크게 늘어 남북간 신뢰 구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중

교계가 직접나선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도적 지원외에 남북간의 종교 교류는 북한 체제의 특수성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지적도 나왔다. 불교계가 신계사와 영동사 복원 불사를 성사시켰지만 개신교의 교회재건이나 가톨릭의 사제상주 추진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남북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정책적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백서는 △자율적 종교교류협력 지원 △북한체제의 종교현실 인정 △종교계 대북지원 확대 △종교간 역할 및 정보교류 △교류인사 및 지역 확대를 향후 종교계 대북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번 백서와 관련, 진각종 지원 정사는 "진정한 통일엔 사회문화적 동질성 회복에 중점을 둔 민간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체제·이념의 한계가 분명한 경제협력이나 당국자간 협력보다 민간 종교교류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서는 우리나라 불교의 교세 현황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2005년 12월 기준으로 조계종과 태고종, 천태종 등 105개 종단이 등록되어 있다. 사찰수는 2만2070곳으로 승려수는 4만1360여명이었다. 불교인구는 1995년 인구선세스 기준으로 1032만여 명으로 인구의 23.2%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약 25%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 수도권사찰 포교현황 조사

포교원·중앙총회, 14개 사찰 대상

조계종 중앙총회 포교분과위원회는 5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사찰의 포교현황 조사' 사업시행을 논의했다. 수도권사찰의 포교현황 조사는 포교분과위와 포교원 공동으로 5월 22일부터 9월까지 수도권 14개 사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본말사 주지 인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포교원 실무자들이 직접 방문, 주지 스님과 상담 조사를 벌인다. 조사대상 사찰은 도선 대령사찰과 사설사찰 제외한 공찰을 중심으로 조계사 도선사 육전암 영화사 사자암 무진법장사(사) 개운사 경국사 동명사(사) 수국사 삼보사(사) 봉은사 약사사 약사사 등 14곳이다.

조용수 기자

## '서울사암대표자협의회' 출범

### 22일 조계사에서 '현판식'

조계종 서울사암 대표자협의회(공동대표 해자·원해·원담)가 5월 22일 서울 조계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4월 19일 열린 직할교구총회에서 교구분권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설립을 추진해온 서울사암 대표자협의회는 △서울특별시에서 소재하는 조계종 사찰의 유대 강화 △대(對)서울시 현안 사업 및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응책 마련 △서울시민을 대

상으로 하는 포교사업의 종책마련과 공동 포교 전략수립 등 각종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5월 15일에는 도선사 해자, 삼성암 원해, 석불사 경륜, 수국사 토진, 약사사 태연, 육전암 정범, 적조암 자재, 정수암 상덕, 조계사 원담, 진관사 계호, 청룡암 해조, 호암사 원욱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위원회를 갖고 직할교구 내 서울 사암원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017)352-7121

조용수 기자

### '영축총림 방장추대' 촉구

조계종 총무원이 방장 추대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통도사주지 직무

대행 현문에 방장추대 촉구공문을 5월 16일자로 발송했다. 총무원은 "우리종단 종헌 106조 2항과 총림법 4조 2호에 의해 방장이 권위 지 1년 이내에 추대하지 못하면 총무원장이 중앙총회에 총림지정을 해제를 발의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축총림 통도사 비상대책위(대표 목산)는 5월 14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승랍 45년 이상 스님들과 전현직 주지 총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26일 '산중회의'를 열기로 한데 이어, 통도사 총무소는 이를 반대하는 성명을 16일 발표하는 등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천미희·조용수 기자

# "죽는 날까지 포교" ... 네트워크 구축으로 역량 배가

## 첫 '군승 하계 수련회', 수불 스님 10억 약정 군법사 20명 골수기증 · 30명은 장기기증



2006 군포교 합시다 포스터. 조계종 군포교구-현대불교 공동캠페인

지난해 조계종 군포교구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군법사가 한자리에 모여 군포교 활성화를 다짐했다.

조계종 군포교구(주지 일면)는 5월 16일-18일 속초 영랑호콘도에서 '한국불교의 미래군포교 불기 2550년 군승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날 하계 수련대회에는 육해공군 군법사 136명 가운데 해외 파견 및 교육자를 제외한 119명이 동참해 포교의 황금어장인 군포교의 선봉장으로서 죽는 날까지 포교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군승 수련회는 입제식을 시작으로 신홍사 회주 오현 스님 법문, 안국선원 수불 스님 특강, 군승회의, 조계종 군포교구의 역할, 생명나눔 홍보, 체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입제식에는 신홍사 회주 오현, 조계종 군포교구 주지 일면, 부주



육해공군 군법사 119명은 불기 2550년 하계수련회를 갖고 군포교 활성화에 전력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지 계성, 건봉사 회주 영도, 낙산사 주지 정남, 천태종 사회국장 무원 스님과 강원도청 환경문화관광국 홍보국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수련회 자리를 빛냈다.

신홍사 회주 오현 스님은 법문을 통해 "내가 당신들을 보고 있고 당신들도 나를 보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법"이라며 "군법사들이 어려운 현실에서도 군포교의 전방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오늘 날 한국불교가 있다"며 군법사의 활동을 치하했다.

법문에 이어 스님은 주석에서 군법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수행 정진하라는 당부를 하며 군포교 발전기금 1590만원을 보시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도 특강을 통해 "군 포교 발전을 위해서는 군법사님들이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수행자로서의 정신을 잃지 않는

때 가능하다"며 "앞으로 군포교 발전을 위해 10년동안 매년 1억씩 회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수불 스님은 특강 이후 조계종 군포교구에 올해 1억원을 직접 기탁하고 약정서에 서명했다. 둘째날 열린 특강에서는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서 군인드라넛컴(gunindra.com)을 개설해 군포교의 현실과 필요성을 불자들에게 알리고 군법사들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결의했다.

또한 조계종 승려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과 군법사의 청규를 제정해 발표하는 등 군법사의 자질 강화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하계 수련회에서는

군법사들이 생명나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골수 이식과 사후 장기 기증을 서약해 화제를 모았다. 17일 오전 장기기증의 의미와 현황을 설명나눔실천회로부터 설명받은 군법사들은 현장에서 20명이 골수 기증, 30명이 사후 장기 기증을 신청했다.

조계종 군포교구 주지 일면 스님은 "지난해 교구가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군법사님이 마음놓고 군포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못 마련해 준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서로 힘을 모아 꼭 해야 할 군포교를 위해 전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글·사진/속초=김두식 기자

##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제를 갖추면서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군법당, 군법사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조계종 군포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포특별교구)

만인 동참 ARS: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포교를 살립니다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보시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양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 노래방기기 전달·즉석 댄스 파티!

심우회, 12사단 신교대법당서 위문법회



군포교를 전문으로 하는 심우회(회장 김정근)는 5월 14일 12사단 훈련소 신교대법당에서 부산 해운대 목련암 성덕 스님을 초청해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위문법회에는 김정근 심우회장을 비롯해 회원 40여명이 참석해 땀과 음료는 물론 합창, 노래방 반주기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법회에 동참한 150여명의 장병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사진). 성덕 스님은 "한국 불교는 호국

불교의 훌륭한 전통이 있다"며 "장병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군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법문했다.

김두식 기자

# 2006학년도 후기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일반대학원

### 1. 모집과정 및 인원

과정	학과	전공	모집인원
석사학위과정	불교학과	- 불교학 - 역경학 - 실천불교학 (포교사회) - 불교문화재학	13명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 불교문화재학전공자는 졸업후 학사(3급) 자격증취득 가능

### 2. 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
-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 또는 대한불교 종단협의회에서 인정된 타 종단 승려

\* 타 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입학 후 소정의 학부과정 개설과목(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3. 전형일정

- 원서 교부: 2006. 6. 5(월) ~ 9(금) 17:00까지 (대학원 교학부)
- 원서 접수: 2006. 6. 5(월) ~ 9(금) 17:00까지 (대학원 교학부)
- 전형 일: 2006. 6. 15(월) 14:00부터
- 합격자 발표: 2006. 6. 19(월)
- 등록 기간: 2006. 6. 21(수) ~ 6. 30(금)

###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장소: 대학원 세미나실(2006. 6. 15. 13:30까지 입실) 면접 고사실 - 대학본부 2층 세미나실
- 시간: 2006. 6. 15(목) 14:00 면접 및 서류 전형

### 5. 제출서류

- 입학지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 학업 및 연구계획서 (본교 소정양식) 1부
-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백분율 성적 기재분) 1부
- 승적증명서 (3개월 이내) 1부 (최종수계일 기입 요)

- 해당 총무원장의 추천서 (타 종단 스님)
- 주민등록등본 1부
- 칼라사진 5매 제출 (가사 수한 사진 3×4cm)
-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를 제출한 스님은 합격 후, 2006. 8. 28(월)까지 학위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6.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 원서대: 무료
- 전형료: 40,000원

### 7. 사정원칙

- 입학원서 및 구비서류 기재사항에 허위 및 허자가 있는 자는 불합격 처리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전형 미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상기 사정원칙에 기재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입학 사정회에서 결정함.

### 8. 지원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재. (www.sangha.ac.kr)

###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교학부
- 전화: 031)980-7864(내선: 7864) / FAX: 031) 980-7863
- 특전: 1) 조계종 소속 승려(구제계 수지자)는 장학금 혜택이 있음. 2) 각종 교내·외 장학금 지급 3) 전공별 대학원 연구실 제공

# 홍승스님의 사찰음식강좌 회원모집 안내

초급반 개강 5월30일 (화) 오후 2시, 6월 1일 (목) 오전10시

- 강좌 안내 및 장소  
가. 강좌기간: 초급반 - 3개월간  
중급반 - 3개월간  
고급반 - 6개월간  
나. 강좌장소: 홍승스님의 사찰음식 연구회 강습실 (서울시서초구 양재동 249-13 학빌딩 2층)
- 모집인원  
초급반 강좌: 선착순 20명 모집
- 강좌 및 실습내용  
가. 매회 2~3 가지의 사찰음식 실습  
나. 사찰음식에 담긴 뜻과 의미에 관한 교육  
다. 천연조미료의 종류와 제조 방법에 대한 교육  
라. 올바른 식사예절에 관한 교육  
마. 사찰음식의 발굴과 보급 연구  
바. 조리에 관련된 각종 특강
- 문의 및 접수  
홍승스님의 사찰음식 연구회  
대표전화: 02)2058-0818, 017-392-3452  
E-mail: sansar07@hanmail.net  
\*알지 못하는 연구회에서 지금해 드립니다.

## 홍승스님의 사찰음식연구회

서울시서초구 양재동 249-13 학빌딩 2층 문의 02)2058-0818, 017-392-3452